

이 자료는 2006년 3월 4일 조건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擔 當	이홍식 FTA 팀장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200 010-3074-1202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

主要内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2006년 3월 3일(금)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대회의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삼성경제연구소 후원)로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 세미나를 개최함.
- 본 세미나는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1)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의미, 2) 한·미 FTA의 부문별 영향분석, 3)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됨.
- 제1세션에서 유현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이 양국간의 국가간 협상보다 한국과 미국 내의 국내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한·미 FTA 협상은 국내협상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잠재적 피해 집단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함을 강조함.
-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은 생산성 증가를 고려할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 효과는 약 5% 이상으로 종전 총량모형(생산성 증가 미고려)에 비해 약 3%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GDP 증가 효과는 7.75%로서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생산성 증대에 따라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제2세션에서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은 한·미 FTA의 결과 농업생산은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 정도 감소,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근본적인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를 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함.

-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한·미 FTA의 결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분야의 총산출은 최고 15.9조원, 고용은 최고 28.9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서비스 기업화의 촉진,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장은 한·미 FTA 체결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계가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하고, 한·미 FTA는 제조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수출 증대 효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산업 및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 정명생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체결 시 전체 국내 수산업 생산은 약 511~84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향후 ① 피해 업종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②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장기이행기간 부여 등 특별취급 확보, ③ 가공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적극 지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첨부: 주요 발표내용

2005. 3.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션 1: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발표1: 한·미 FTA의 정치적 의의: 영향과 고려사항

유현석(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은 한·미간의 국가간 협상보다는 한국과 미국 내의 국내협상이 될 가능성이 큼.
 - 한국 정부는 농민들과 영화인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부분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하며, 미국 정부는 국내 철강, 자동차, 섬유 등의 산업부문과의 협상이 중요함.

-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은 첫째, 한·미간의 동맹관계의 강화, 둘째,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 하려는 미국의 노력, 셋째, 미국의 한국의 중국 경제권 편입 견제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대외적으로 분단 상황, 통상, 금융, 노사관계 그리고 생활환경 및 국민의식 등에 대한 불신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한·미 FTA 협상은 국내협상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미 FTA의 잠재적 피해 집단과의 협상에 충력을 기울여야 함.

-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협상 기간 동안 북한 핵 문제, PSI 참여문제, 북한에 대한 금융재제 문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 한·미간 현안들이 동시에 다루어지는바, 여기서 생기는 갈등이 한·미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또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단순히 경제적 기회비용만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 감정의 악화라는 외교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바, 양국은 지나치게 자국 이익을 관철에만 노력해서는 안 됨.

발표 2 :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경쟁 압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우리의 수출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개연성을 CGE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

<표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

구 분	단기(정태)효과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42% (29억 달러 증가)	1.99% (135억 달러 증가)	7.75% (352억 달러 증가)
GDP (금액기준)	0.15% (10억 달러 증가)	0.72% (33억 달러 증가)	6.65% (302억 달러 증가)
후생수준	0.61% (24억 달러 증가)	1.73% (68억 달러 증가)	6.99% 281억 달러 증가
생 산 (금액기준)	0.61% (8.5조원 증가)	1.94% (27.0조원 증가)	6.18% (86.0조원 증가)
고 용	-0.51% (85천명 감소)	0.63% (104천명 증가)	3.30% (551천명)

- 주: 1) 총량분석 시나리오는 제조업 전면개방 + 농산물 80%개방(한국만), 서비스 교역장벽 20% 감축.
 2) 생산성 증대 시나리오는 총량분석 시나리오에 제조업 각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를 추가 (약 1%).
 3) 정태적인 효율성 증진 효과의외 소득증가로 파급된 추가적인 자본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분석임.
 4) 추정결과는 모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때의 증분임(Multi-year가 소요되나 모형에서 구체적 기간은 명시 불가).

- 제조업에서만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생산성 증대에 따른 실질 GDP 증가 효과는 약 5% 이상으로 종전 총량모형에 비해 약 3%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 GDP 증가 효과는 7.75%로서 더욱 커짐.

-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장기적인 생산성 증대에 따라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을 제시함.

- 미국이라는 선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시 중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대외 신인도 상승,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증진 등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

- 제조업 부문에서의 소폭의 생산성 증대가 거시경제 전체의 효과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음.

○ 9개 부문의 제조업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의 생산성 흘러내림효과 (trickle-down effect)

○ 생산성 증대에 따라 절약된 노동 및 자본이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생산증가효과

○ 각 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따른 산업에서의 생산 증가 효과

□ 또한 다양한 중장기적인 생산성 증대 요인을 모형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경우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함.

세션 2: 한·미 FTA의 부문별 영향분석

발표 1 : 한·미 FTA의 농업부분 파급 영향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

□ 2001년 GTAP 데이터를 가지고 한·미 FTA 농업부문에 대해 각각 50%, 30%, 10% 관세 감축 또는 인하를 가정하여 효과분석을 함(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 제외).

- 농업생산은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 정도 감소됨. 품목별로는 축산물(3,380~9,031억원), 채소·과일(1,200억원~2,554억원), 기타작물(1,792~1,963억원), 낙농제품(142억원~1,110억원) 순임. 생산 감소율 면에서는 유지작물(49.6%), 곡물(18.6%), 축산물(14.5%) 순임. 한·미 FTA시 가장 큰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축산물 중에서는 현행 관세가 40%인 쇠고기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시나리오별 결과 참조). 대미 농산물 수입 증가분 중 일부는 수입전환효과로 인한 것이 있지만

수입전환효과보다는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농업부문은 FTA로 생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현재 농업노동력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므로 농업에서 배출되면 타 산업에의 재취업이 어려워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분석에 의하면 71,505~142,816명의 공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001년 분석에 의하면(1995년 GTAP자료 이용), 전 품목의 관세 철폐 시에 농업부문에서 88억 1,900만 달러(8조 8,190억원)의 생산감소를 전망함.

□ 한·미 FTA는 농업부문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FTA에 비해 훨씬 부정적 효과가 클 것임.

- 식량안보 또는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있는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임(미국이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미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과 설탕제품, 일부 낙농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 품목은 18년이라는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점 등).
- 근본적인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임(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발표 2 : 한·미 FTA의 효과 : 서비스 부문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 한·미 FTA체결시 전반적으로 한국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가 필요한 상황임.

- ①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중간재로서의 선진 서비스 산업의 육성, ② 제조업과 이외 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 경제 전체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 한·미 양국간 서비스 산업의 교역현황을 보면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93억 달러(총수출의 28.3%), 수입은 약 127억 달러(총수입의 31.4%)를 기록
 - 대미 서비스 수지는 약 33억 달러 적자이며, 총서비스 수지 적자의 44.9%가 미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발행
 - 미국은 서비스 부문에 있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

- 이러한 미국과 한·미 FTA체결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분석결과 우리나라 서비스분야의 총산출 및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해 ① 서비스 기업화의 촉진, ② 고용의 질 개선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 ③ 미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부문 효과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총생산	2.1조원	9.4조원	3.3조원	15.9조원
고 용	5만 명	17.1만 명	7.8만명	28.9만명

발표 3 : 한·미 FTA와 제조업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장)

- 미국은 우리에게 교역이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으로 2005년 기준 총 716억 3천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해 미국은 우리나라에 세 번째 교역국이며 2005년말 누계 전체 외국인 투자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최대 외국인 투자국임.

- 하지만 최근 미국이 FT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 등과 교역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중국의 대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중요한 시장을 잃고 있음.

- 특히 우리 전통적인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를 기록중임.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파악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계가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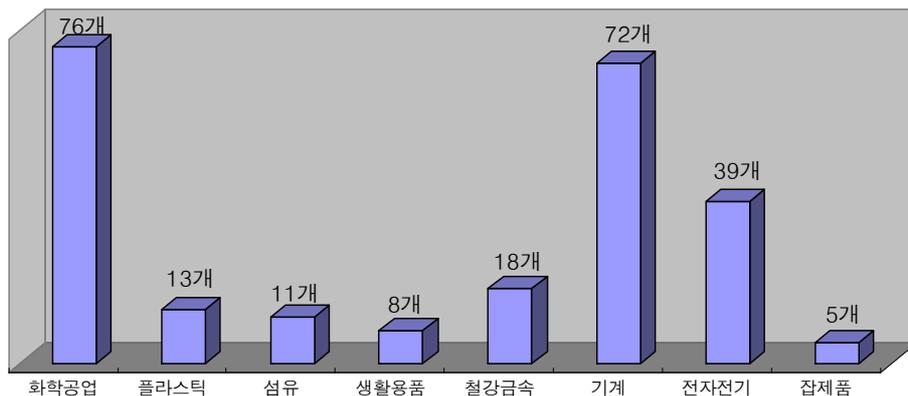
- 또한 고무 제품, 신발/모자, 가죽 제품 등의 수출 증대효과도 기대됨.

□ 한편 석유화학분야는 한·미 FTA로 인해 다소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철강업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파악됨.

□ 양국의 수출입 실적과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수입민감품목을 살펴본 결과, 화학공업분야에서 톨루엔, 에틸헥실알콜, 기타 에틸렌 등 수입 민감품목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음.

- 기계류의 경우 증기터빈부분품, 반도체제조용기기가, 철강금속류에는 알루미늄합금판, 기타 철강제품이, 플라스틱 및 고무에서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등이 수입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음.

<그림 1> 산업별 수입민감품목 분포



□ 한·미 FTA는 제조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출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인 수출 증대 효과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우리나라 산업 및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발표 4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 부문의 영향과 고려사항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한국의 수산물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수입액의 6%, 수출액의 5.2%로 낮지만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
 - 그러나 수입 감소로 적자폭은 감소 추세

- 그러나 일부 미국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높음.
 - 따라서 무세화시 수입시장내 경쟁이 없어 수입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명태 관련품목의 수입비중은 2000년 33.9%에서 2004년 44.9%로 지속적으로 증가

- 대미 수산물 수출은 다품목·소액 중심임.
 - 수출 품목은 총 157개이며 이중 상위 10개 품목이 70%를 차지
 - 주요 수출 품목은 굴, 김, 게살, 오징어 등임

- 한·미 FTA체결 시 전체 국내 수산업생산은 약 511~84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은 ① 원양어업에서 374~524억원, ② 연근해업에서 92~214억원, ③ 양식어업에서 45~1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외 간접적인 영향으로 직업 전환 및 탈어촌 심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향후 ① 피해 업종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②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장기이행기간 부여 등 특별취급 확보, ③ 가공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적극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